

신남방경제실 인도·남아시아팀

## (인도 · 남아시아) 코로나19 관련 동향

2020.11.05.

### 1. 인도

#### 1) 확산동향

- 현지시각 11월 5일 오전 8시 기준, 누적 확진자 수는 8,364,086명, 사망자 수는 124,315명으로 집계<sup>1)</sup>
  - 누적 검사 수는 114,208,384건이며(11월 4일 기준), 일일 확진자는 9월 17일 9만 7,894명을 최다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한 이래 점차 줄어들며 10월 말 이후 일간 확진자는 4만 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.
  - 주(州)별 누적 확진자는 △마하라슈트라(1,698,198명) △카르나타카(835,773명) △안드라프라데시(833,208명) △타밀나두(734,429명) △우타르프라데시(489,502명) 순으로 많이 나타남.<sup>2)</sup>

#### 2) 경제적 영향

- 인도 재무부는 2020/21년 말에는 인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.<sup>3)</sup>
  - 인도 재무부에 따르면 △농업생산 호조 △전력소비, 철도화물양, 자동차 판매 증가 △ GST 징수 반등 등 다수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남.

#### 3) 정부의 대응

- 매달 점차적으로 봉쇄 완화 조치를 확대하던 인도 정부는 11월 봉쇄완화조치를 10월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
  - 완전봉쇄구역(Containment Zones)을 제외한 인도 전역에서는 ‘Unlock’ 지침에 따라 활동을 재개하고 있음.

1) myGOV 홈페이지(<https://www.mygov.in/covid-19/?cbps=1>)(검색일: 2020.11.05)

2)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홈페이지(<https://www.mohfw.gov.in/>)(검색일: 2020.10.21)

3) <https://indianexpress.com/article/india/economy-likely-to-reach-pre-covid-levels-by-fiscal-end-2nd-wave-may-be-headwind-6950458/>(검색일: 2020.11.5.)

표 1. 인도 연방정부 봉쇄해제조치 시행 내용

봉쇄완화 조치	기간	주요 내용
Unlock 1.0	6월 1~30일	△쇼핑몰, 종교시설, 호텔, 음식점 운영 재개 △대규모 모임 금지 △야간 통행금지 시행(오후 9시~익일 오전 5시)
Unlock 2.0	7월 1~31일	△교육시설, 지하철, 오락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 재개 △야간 통행금지 시행(오후 10시~익일 오전 5시)
Unlock 3.0	8월 1~31일	△운동시설 재개 △지역 간 이동 허용 △교육시설, 영화관, 수영장, 놀이공원, 극장, 강당, 유흥시설, 국제항공편, 지하철 운영금지 △8월 15일 독립기념일 행사 사회적 거리 유지
Unlock 4.0	9월 1~30일	△지하철 운영 재개 △결혼식 50명 이하, 장례식 20명 이하 참석 허용 △100명 이하의 단체 모임 허용 △공공장소, 교통수단, 직장 등에서 마스크 의무화
Unlock 5.0	10월 1일 ~11월 30일*	△교육시설 운영개시(온라인교육 권장) △운동선수 훈련 목적의 수영장 운영 재개 △극장 및 영화관 운영 재개(좌석 인원 50%로 제한) △200명 이하의 단체 모임 허용

주: 10월 27일 인도 내무부(Ministry of Home Affairs) 발표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시행 기간 연장  
자료: 안성배 외(발간예정 자료), 2021년 세계경제 전망, KIEP 오늘의 세계경제.

□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긴급신용한도보장 제도를 11월 말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,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

○ 인도 정부는 전체 3조 루피 규모의 긴급신용한도보장 제도를 한 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함.

- 이는 5월 발표된 2차 경기부양책 가운데 하나인 중소기업 대상 지원 제도로 10월 말 종료 예정이었음.<sup>4)</sup>

○ 10월 수요자극을 위해 GDP 0.2% 규모의 3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인도 정부는 조만간 인프라 및 산업지원에 방점을 둔 4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임.<sup>5)</sup>

4) <https://economictimes.indiatimes.com/news/economy/finance/centre-extends-emergency-credit-line-guarantee-scheme-till-the-end-of-november/articleshow/78998620.cms>(검색일: 2020.11.5.)

5) 인도정부는 3월과 5월 각각 빈곤·취약계층보호(GDP 0.8% 규모)와 공급측면조치 및 장기개혁(GDP 10% 규모)에 방점을 둔 경기부양책을 도입한 바 있음. 안성배 외(발간예정), 2021년 세계경제 전망, KIEP 오늘의 세계경제.

## 2. 남아시아

### 1) 확산동향

-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의 확산세가 안정된 가운데, 10월 이후 네팔, 스리랑카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.
  - (파키스탄) 11월 5일 현지시각 오전 8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338,875명, 사망자 수는 6,893명을 기록<sup>6)</sup>
    - 8월 이후 일일 확진자 수는 1,000명 미만을 지속했으나, 10월 30일 1,000명을 돌파하고 11월 4일 1,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.
  - (방글라데시) 11월 4일 현지시각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41,164명, 사망자 수는 6,004명을 기록<sup>7)</sup>
    - 방글라데시 일일 확진자 수는 평균 1,500명 수준을 지속
  - (스리랑카) 10월 초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확대되던 확진자 수가 지난 2주 새 두 배 이상 증가하며 현지시각 11월 5일 오전 1시 기준 12,187명의 확진자, 24명의 사망자 발생<sup>8)</sup>
    - 콜롬보 외곽 미누완고다(Minuwangoda) 의류공장과 펠리야고다(Peliyagoda) 수산시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8천여 명의 집단 감염 발생
    - 10월 23일에는 일일 확진자 최고 수준인 866명 기록
  - (네팔) 11월 05일 기준 확진자 총 182,923명, 사망자 1,034명 발생<sup>9)</sup>
    - 최근 2주간 누적 확진자 수는 26.3% 증가했으며, 일일 확진자 수는 일주일간 약 2천 명을 기록 중

### 2) 경제적 영향

- 이주노동자의 귀국으로 인한 실업문제와 송금(Remittance) 감소 문제, 국제 수익률 하락 등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안정된 파키스탄은 경제회복 기미가 나타나고 있음.
  - (파키스탄) 아사드 우마르(Asad Umar) 기획부 장관은 강력한 수출 성장, 대규모 제조업의 성장 및 이익 증가 등 파키스탄 경제가 회복의 길에 있다고 함.<sup>10)</sup>

6) <http://covid.gov.pk/>(검색일: 2020.11.5)

7) <https://corona.gov.bd/> (검색일: 2020.11.5.)

8) <https://srilanka.travel/covid19/>(검색일: 2020.11.5.)

9) Johns Hopkins University. "John Hopkins Covid Tracker" <https://coronavirus.jhu.edu/map.html>(검색일: 2020.11.05.)

10) <https://www.brecorder.com/news/40030579>

- 한편 2분기 112.8에 불과했던 기업낙관지수(Business Optimism Index)가 3분기 146.5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, 응답자의 72%가 수요증가로 인해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<sup>11)</sup>
- (방글라데시) 이주노동자 귀국으로 인한 실업 문제가 장기화될 것에 대한 우려 확산
  -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2/3가 거주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의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<sup>12)</sup>
- (스리랑카) 국제 수익률 10월 기준 -20.0%로 아시아 최저 수준 기록<sup>13)</sup>
  - 무디스의 스리랑카 신용등급 하향조정(9월 말, B2 → Caa1)과 코로나 19 2차 확산에 기인
- (네팔)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거주 노동자 등에 의해 창출되는 네팔의 송금경제(Remittance Economy)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임.<sup>14)</sup>
  - World Bank에 따르면, 금년도 네팔의 해외송금 유입액은 약 74억 달러를 기록 중이며, 이는 전년 대비 12% 하락한 수준임.

### 3) 정부의 대응

- 남아시아 주요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사회·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으나,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스리랑카는 제한 조치를 강화함.
  - (파키스탄) 11월 3일 산업용 전기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패키지를 발표함.
    -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전기 요금의 50%를 할인받게 됨.
  - (방글라데시) 마스크 착용을 강조(no mask, no service)하는 한편, 당분간 추가적인 봉쇄 계획은 없다고 밝힘.<sup>15)</sup>
  - (스리랑카) 집단감염 확산 지역을 중심으로 통행금지령을 발동하고 지역 간 이동을 엄격히 제한함.<sup>16)</sup>

11) <https://profit.pakistantoday.com.pk/2020/11/02/business-sentiment-in-pakistan-rebounds-to-pre-covid-levels-db/>(검색일: 2020.11.5.)

12) <https://thefinancialexpress.com.bd/views/opinions/pandemic-hitting-migrants-the-hardest-1604501379> (검색일: 2020.11.5.)

13) <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0-11-01/sri-lanka-debt-tumbles-from-best-to-worst-in-asia-on-virus-pain> (검색일: 2020.11.5.)

14) kathmandupost. October 31 2020. "Remittance to Nepal may drop to \$7.4 billion in 2020, World Bank says"(검색일: 2020.11.05.) <https://kathmandupost.com/money/2020/10/30/remittance-to-nepal-may-drop-to-7-4-billion-in-2020-world-bank-says>

15) [http://www.xinhuanet.com/english/2020-11/03/c\\_139486951.htm](http://www.xinhuanet.com/english/2020-11/03/c_139486951.htm) (검색일: 2020.11.5.)

- (네팔) 11월 3일 네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폐쇄했던 히말라야 등반로를 해외 관광객에 재개방하기로 결정<sup>17)</sup>
  - 이러한 조치는 네팔 관광업계의 극심한 경제적 타격 및 약 8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업 근로자 수입보전을 목적으로 시행
  - 다만 네팔 정부는 △등반 희망자 사전 허가제 운영 △모든 등반객의 코로나19 사전검사 결과 제출 △모든 등반객은 지정장소에서 1주일간 격리조치 등의 세부요건을 함께 발표하였음.

---

16) <https://www.thehindu.com/news/international/coronavirus-sri-lanka-shuts-down-capital-following-surge-in-cases/article32997106.ece> (검색일: 2020.11.5.)

17) CNBC. NOV 3 2020. "Facing pandemic economic woes, Nepal reopens to adventurers looking to scale Himalayas" <https://www.cnbc.com/2020/11/03/nepal-reopens-to-adventurers-looking-to-scale-himalayas.html>(검색일: 2020.11.05.)